

충남사회적경제 대화마당 스케치 ‘청년이 바라본 사회적경제’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최 낙 원

만 19세~39세의 충남 사회적경제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 40명이 청양 청춘하우스에 모여 ‘청년이 바라본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네트워킹하는 대화마당을 가졌다.

대화마당은 사전 참여 신청서를 통해 진행된 사회적경제 인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하였다.



1부 프로그램은 ‘내가 사회적경제에서 일하게 된 이유’, ‘내가 바라보는 사회적경제란’이라는 질문에 대해 각자 포스트잇 적어 배너에 부착하고, 퍼실리테이터(문화전파사 박모아)가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2부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 3명이 각 분야의 고민에 대해 발제하는 지정토론과 3개조로 나누어 진행하는 순환토론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에서 사회적기업가 최낙원(에프앤비브릿지협동조합)는 ‘청년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협동조합 근로자 김영룡(협동조합 주인)은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력, 커리어 관리’, 중간지원조직 근로자 조원빈(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은 ‘활동가와 노동자, 나는 누구인가요?’라는 주제로 발제 하였다.



에프앤비브릿지협동조합 최낙원 이사장



협동조합주인 김영룡 대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조원빈 팀장

순환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에서 계속 일 할거야?’, ‘성장 못하는거야 안하는거야?’, ‘돈은 적게 벌지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회사 VS 돈은 많이 벌지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회사’라는 3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온앤온협동조합 박진규 대표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의 미래가 많이 기대된다. 각자의 공간에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노력해가면 더 나은 사회적경제의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총괄기획을 담당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세민 대리는 “사회적경제가 지

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오래 일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해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화마당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충남사회적경제 대화마당 [청년이 바라본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나누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 공유를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 방안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으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서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에프앤비브릿지협동조합, 충남청년사회적경제생활모임(사생활모임)이 공동주관하였다.



특히 이번 대화마당은 신청자가 몰려 단체당 인원제한을 두거나 참여조건을 강화할 만큼 청년 사회적경제인이 평소에 이런 대화의 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은 추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카드뉴스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